

셋째, 그는 바울로처럼 변증적이며 관념적으로 추상화한 그리스도론이나 구원론을 전개하지 않고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소박한 민담적 서술법을 쓰고 있다.

이상의 비교에서 우리 주제와 관련하여 지적할 것이 하나 있다. 즉 마르코는 바울로와는 다른 사회적 상황에 있으므로 바울로에 있어서 총집약된 케리그마적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에 있을 뿐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것과 거리를 두었다고 보인다. 마르코의 그런 입장은 역사의 예수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정 밑에서 볼 때 그에 의해 부각된 오클로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마르코시대의 유다계 그리스도인을 위시한 온 유대인들은 그 본토에서 추방되어 목자 없는 양떼처럼 흩어져 유랑길에 나서야 했다. 마르코가 ‘오클로스’를 사용하는 데에는 이러한 역사적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즉 마르코에서의 오클로스의 사용은 이러한 마르코의 역사적 상황에서 요청된 결과이다.

### 3. 마르코복음에 나타난 오클로스의 성격

일반적인 순서로는 오클로스의 언어학적 개념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나, 여기서는 마르코복음에 등장한 오클로스의 성격을 찾는 작업을 우선한다. 그럼으로써 관례적 개념의 틀에 가두는 주관적 해석을 가능한 한 줄이려고 한다.

#### 1) 오클로스의 성격

이하는 오클로스라는 개념을 사용한 군상(群像)들을 종합 분석한

것이다.

예수가 가는 곳마다 언제나 그를 찾아 모이는 이들이 바로 오클로스이다(마르 2, 4·4, 1·5, 21·5, 24·5, 31·8, 1·9, 20·9, 32·10, 1·13, 3). 그중의 많은 경우에는 저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오클로스는 예수 활동의 배경이며, 그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무조건적 추종자’로서 부각된다.

오클로스는 그 사회에서 정죄받은 이른바 ‘죄인’들이다. 특히 마르코는 오클로스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면서 그들의 표본으로 ‘세리와 죄인’을 내세우며, 율법주의자들이 예수가 저들과 식탁을 함께하는 것을 비판하는 장면을 연결시킴으로 저들은 부정(不淨)한 이들로써 소외당한 계층임을 나타낸다(2, 3~17).

또 마르코에 있어서 오클로스는 제자(μαθητής)와 구분하는 경우가 있으며(8, 34·9, 14·10, 46), 제자들만 상대하고 저들을 가르침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4, 36·6, 46·7, 17·7, 33). 이 점에서 보면 오클로스보다 ‘제자’들을 우위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대조시켜 주목할 것은 마르코에서 제자들은 자주 맹렬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특히 무지하다는 뜻에서), 오클로스는 책망받는 예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자들의 사도권이 확립되었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마태오, 루가는 제자들에 대한 비판의 말씀을 과감하게 삭제 또는 미화했다.

마르코에서 오클로스는 예수를 적으로 삼고 공격·비판하는 ‘예루살렘’의 지도층과 대조됨으로써 반예루살렘적인 입장에 선 계층이며,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예수의 편에 섰음을 뚜렷이 한다(2, 4~6·3, 2~21·4, 1·11, 18·11, 27~32). 이 시각에서 마르코가 오클로스로서 갈릴래아의 민중을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오클로스는 지배층과 긴장관계에 있으며, 집권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집권자들은 저들의 분노를 되도록 피하려고 한다(11, 18·11, 32·12, 12·15, 8·15, 15). 따라서 지배층이 저들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는 저들을 매수하는 길밖에 없었다(예수를 처형할 때 오클로스를 동원하기 위해 저들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들의 저력을 말하는 동시에 저들은 하나의 가능성이지 필연성은 아님을 나타낸다).

## 2) 오클로스에 대한 예수의 행태

예수는 오클로스를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긴다(6, 34).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유래하는데, 구약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여 저들을 돌볼 책임을 진 지배층을 비판하는 전통과(가령 에제 34, 5) 야훼를 배신함으로써 방향을 잃은, 저주받은 군중으로 비판하는 전통(열왕상 22, 17)이 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후자의 경우는 전혀 없다. 모세가 그의 후계자 선택을 위한 간구에서 “야훼의 회중을 목자 없는 양떼처럼 버려두지 마십시오”(민수 27, 17)라고 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마르코는 예수를 따르는 저 굶주린 오클로스를 지도자 없는 군중으로 보며 동시에 저들은 당시의 지배층에게 소외된 계층임을 암시하고 있다 하겠다.

예수는 오클로스들이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라고 선언한다(3, 34). 3장 34절은 “자기를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라는 서술 다음에 이런 선언을 하는데, 그 앞 32절의 “무리(오클로스)가 그를 둘러앉았다”라는 편집구를 통하여 마르코는 독자들로 하여금 저들이 바로 오클로스임을 알도록 한다. 이것은 혈연적 가족관계에서의 탈출과 동시에 오클로스가 새로운 공동체(가족)의 구성원이라는